

# 사랑의 생애 - 이승우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내부에서 일어나는 미묘하고 당황스러운 현상들을 탐사하는 데 할애된 이 소설은 떠오르는 대로 순간의 단상을 적어둔 여러 개의 내 메모들에서 탄생했다.

특별한 사람들의 별스러운 *사랑 이야기*를 지어내는 대신 평범한 사람들의 *사랑 경험*을 현미경으로 들여다 보고 보고서를 쓴다는 것이 이소설을 쓸 때의 작의라면 작의였다.

*사랑 경험*은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비슷하고, 비슷하지만 다 다르다.

제목은,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일 뿐이고, 사랑이 그 안에서 제 목숨을 이어간다는* 뜻으로 '*사랑의 생애*'라고 했다.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숙주*이다. *사랑*은 누군가에게 흘러서 *사랑*하기로 작정한 사람의 내부에서 생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마치 물이나 수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아니면 누군가 파놓은 함정이라도 되는 것처럼, 난 *사랑*에 빠졌어, 라고 말한다. *사랑*이 사람이 빠지거나 잠길 수 있는 것인 양 물화시켜 말하는 이런 수사는 *사랑의 불가항력적 성격*을 표현하면서 동시에 그에 대한 무의식적인 저항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에 빠진 사람*이 '나'이다.

빠진 사람이 나이므로 빠져나올 사람도 나라는 생각은 돌연히 들이닥친 *사랑의 사건* 앞에서 주체가 겪는 당황과 불안과 무기력을 몰아내기 위해, 혹은 회피하기 위해 구사하는 일종의 기교 같은 것인데, 안타깝게도 이 기교는 거의 효과를 내지 못한다.

사람이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사람이 빠질 *사랑의 웅덩이*가 대체 어디 있단 말인가!) *사랑*이 사람 속으로 들어온다. *사랑*이 들어와 사는 것이다. 숙주가 기생체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기생체가 숙주를 선택하는 이치이다.

세상에 떠도는 말대로, *사랑*하면 용감해지거나 너그러워지거나 치사해진다. 유치해지거나 우울해지거나 의전해진다.

몸 안에 *사랑*이 살기 시작한 이상 아무 변화도 생기지 않는 경우는 없다. 그것은 *사랑하지 않는 다른 사람*과 다를 뿐 아니라 *사랑하기 전의 자기*와도 같지 않다. 같을 수 없다. *사랑*이 들어와 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어느 순간 *사랑*은 문득 당신 속으로 들어오고, 그러면 당신은 도리 없이 *사랑을 품은 자*가 된다. *사랑*과 함께 *사랑*을 따라 사는 자가 된다. *사랑*이 시키고 원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사랑*에 빠졌다는 식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사랑해도 되는 사람*인가 아닌가는, *사랑의 초기*에 반드시 찾아오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이지만, 연연해할 일은 아니다.

**사랑할 만한 자격**을 갖춰서가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올 때 당신은 불가피하게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자격을 갖추고 있어서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당신 속으로 들어와서 당신에게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다. **사랑이 들어오기 전**에는 누구나 **사랑할 자격**을 가지고 있지 않다.

아무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갖춘 사람이 **사랑**한다는 이 생각은, **사랑**에 제한을 두어 특별하고 고귀한 자리에 올려놓음과 동시에 실제 삶과는 관련 없는 허구적인 것으로 밀쳐놓는 역할을 한다.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사랑** 앞에서 자기 몸을 한껏 낮추면서 동시에 (그 겸손의 몸짓으로) **사랑**을 한낱 자격의 문제로 끌어내린다.

**사랑**이 획득하거나 잃을 수 있는 라이선스의 영역으로 떨어질 때, 그러니까 운전면허증이나 워드프로세서 자격증과 진배없는 것이 될 때 '나는 **사랑할 자격**이 없어'라는 겸손한 포즈의 고백은 '**사랑이 별거나?**'는 오만한 선언이 된다.

매혹당하기 위해서는 전에 알던 사람을 모르는 사람으로 바꾸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 끌리지 않고 **사랑**할 수 없다면, 그리고 모르는 상대에만 끌리는 것이 맞다면, **사랑을 시작하는 연인**들에게 필요한 첫 번째 요소는, 모르는 사람을 만나거나 이미 아는 상대를 모르는 사람으로 인식하는 일일 것이다.

**사랑하는 자**는 알아가야 하는 숙제를 떠안는 자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앞으로 알아갈, 모르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랑**은 덮친다. 덮치는 것이 사건의 속성이다. **사랑하는 자**는 자기 속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하는(물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어떤 사람, 즉 **사랑**을 속수무책으로 겪어야 한다.

한 사람으로 가득 차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심하게 외로움을 느낀다면, 허전하고 안타깝다면, 그것이 증거이다.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사랑에 들렸다는 증거**이다.

분명하고 알아듣기 쉽게 고백하기가 쉽지 않다. **사랑하는 자의 말**은 불가피하게 우회하는 말이다. **사랑의 말**은 직선을 모른다. 아니, 모르지는 않지만 쓰지 못한다.

자기든 남이든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시작되는 현장**에서 직선의 언어는 여간해서는 채택되지 않는다.

그녀를 향한 자기의 감정이 단순한 호감일 뿐이어서라고 단정한 그는 그녀의 고백을 못 들은 척했다. 그때부터 그의 마음은 튕겨져 나가듯 뒤로 물러났다. 그는 자기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까 봐** 두려워한다는 걸 알지 못했다. **사랑**에 잡히지 않기 위해 달아나고 있다는 걸 이해하지 못했다. **사랑하는 일**이 생길까봐 심각해지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다는 걸 모르거나 모른 척했다.

**사랑**을 하지 못할까봐 불안해했지만 **사랑**을 하게 될까 봐 두려워했다.

정말로 **사랑**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저절로 긴장이 되었다.

**사랑하라**, 그러나 빠지지 말라. 그것이 그가 내미는 충고였다. **사랑**에 빠질 뿐 **사랑**하지는 않기 때문이 아닌지 돌아보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평생 한 사람만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참된 사랑**이라고? 그것은 낭만적으로 이상화된 속설일 뿐이다.

사회를 갈등과 혼란에서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불변성**에 대한 신화를 만들어 쓴 것 아닌가. 유일하고 영원한 **사랑**의 신화는 **사랑**에 의해, **사랑**을 위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사회에 의해, 사회의 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는 걸 모르는가. **사랑**은 이 신화의 수혜자가 아니라 피해자다.

결혼이 중요하고 필요한 제도라는 걸 부정하지 않는다. 내 말은 결혼은 제도로써 중요하다는 것, 그러나 **사랑**은 결혼이라는 제도에 예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결혼 제도의 유지를 위해 **사랑**은 왜곡되고 희생을 강요받았다. 결혼은 **사랑**이 전혀 관여하지 않거나 아주 조금밖에 관여하지 않는 분야이다.

**사랑**에 대해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사랑**에 대해 더 진지하다. 더 진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는다. 함부로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시도하지 못한다.

예컨대 경기의 결과보다 경기 내용에 대한 평가나 원인 분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선수가 있는 것이다. 그런 선수가 있는 것처럼 **사랑**을 잃은 사실보다 **사랑**이 사라진 이유에 마음을 더 쓰는 사람도 있는 것이다.

**사랑**이 사라진 것이 자기가 부족해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심리는 자존심이 시킨 것.

그녀는 남자의 **사랑**을 얻어내기에 미흡한 자기 약점을 하나하나 불러내기 시작했다. 많은 것들이 불러 나왔다. 그녀는 키가 크지 않았고 부잣집 딸이 아니었고 유능하지 않았고 애교가 많지 않았고 얼굴이 예쁜 편이 아니었고 눈치가 빠르지 않았고 요리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다. 떠올리다 보니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한다는 것도, 주량이 약하다는 것도, 춤을 추지 못한다는 것도 흠으로 여겨졌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받을 자격과 관련된 것처럼 여겨졌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지만, 이제 갑자기 그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자 속이 쓰리고 아팠다. 아파서 견디기가 힘들었다.

'**사랑한다**'는 아무 말도 아닌 말일 수 없다. 그저 그런 말, 하나 마나 한 말일 수 없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이 말을 듣는 순간 우주가 흔들리는 전율을 느끼지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은 온몸을 움직여 떨쳐버리고 싶은 이물스러움을 느끼기도 한다.

'**사랑한다**'는 말은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말이 아닐 뿐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말도 아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하도록 강요받는 사람이다. 강요의 주체는 없다. 객체만 있다. **사랑**은, **사랑**한다는 말을 포함해서 상대에게 무엇을 강요하지 않는다. **사랑**은 강요가 없는 영역이다. **사랑**의 이름으로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 역시 있을 수 없다. **사랑**을 내세워서 무엇을, 그것이 무엇이든, 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자기 **사랑**을 얼마나 대단하고 절실한 것으로 표현하든, **사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무엇을 요구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은 권력이 아니고 권력이 될 수 없고 권력이 되어서도 안된다. 권력을 행사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랑**을 앞세우는 사람은 지배를 하기 위해 국민들을 **사랑**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는 독재자와 다름없다. 독재자의 **사랑**이 권력욕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에 다름 아닌 것처럼 무엇인가를 강요하는 사람의 **사랑** 역시 자기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랑**을 이용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키스하는 게 **사랑**하는 거지, 라고 그가 말하고, 키스하는 게 키스하는 거지,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사회주의자와 공화당원이 **사랑**할 수 있다. 종교가 달라도 **사랑**할 수 있다. 그러나 **사랑의 패턴**이 다르면 사랑하기 어렵다. **사랑의 패턴**이란, 이를테면 만남의 양식과 보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랑**의 이름으로 기대하는 만남의 유형이 다르거나 걷는 걸음의 폭이 다르면 어긋나고 뒤틀리고 결국 짜증스럽게 되어 관계를 접어버릴 마음을 먹게 된다.

남녀 사이의 **사랑**이 사람의 감정과 감각에 의지해서 이루어지는 한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운 것은 어쩔 수 없다고 그녀는 생각했다. 사람의 감정이나 감각이 불완전하고 변덕스러우며 믿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녀는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할 때 그 사람의 일부만, 예컨대 마음에 드는 부분만 **사랑**할 수는 없으며, 그래서 안된다는 확고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키스의 달콤함을 제공하는 사람이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고, 곁에서 코를 골아 잠을 방해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고 제외시켜버릴 수 있는 인간의 비겁하고 나약한 본성 때문에 **사랑**은 외부에서 강제된 결혼이라는 의지의 보장을 받아야 한다.

그녀에게 결혼은 **사랑의 귀결**이나 목적지가 아니라 **사랑의 시발점**이었다. 결혼을 하기 위해 **사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시작하기 위해 결혼을 하자는 것이었다.

**사랑**은 두 사람의 문제이다. **사랑**할 때 세계는 단 두 명의 인류만을 가진, 저 최초의 정원, 에덴으로 바뀐다.

**사랑**이 최고의 선이고 유일한 원동력이기 때문에, **사랑**을 제외하고 무엇이든 바뀔 수 있고, 바꿀 수 있다. **사랑**을 위한 것이라면 어떤 변신도 용납된다.

강요당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그러니까 모든 **사랑의 고백**은 강요된 것이지만, 거꾸로 **사랑**한다는 고백에 의해 사랑이 이끌려 나오는 일도 일어난다. 없는 **사랑**이 갑자기 생겨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흔하지는 않다.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이끌어내진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순간, 그 말은 그 말을 듣는 사람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도 겨냥한다. 더욱 겨냥한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하는 말을 듣기도 하기 때문이다. 듣는 사람은 듣기만 하는 사람이지만 하는 사람은 하면서 듣기도 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은 잘못 들을 수도 있지만 하는 사람, 하면서 듣는 사람은 잘못 들을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사랑**한다고 말한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 되지 않을 수 없다.

선희를 만나면서 그가 정말로 원하는 것은 **사랑**한다고 해주는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경험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자기를 겪는 일이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자기 자신에게 매려되었듯 그는 또 **사랑**한다고 말해달라고 요구하는 자기 자신에게 매료되었다.

**사랑**하는 사람은 특정한 상황 속에 있고 마찬가지로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사람과 관계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실존적이다. 각각의 **사랑** 안에서 연인들이 맡은 역할이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제각기 다르게 사랑하면서도 누구나 '**사랑한다**'는 한 가지 표현을 쓴다. **사랑**하는 것을 **사랑**한다는 것 말고 다른 말로 표현할 길이 없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같은 말을 하면서 다르게 **사랑**한다.

자기와 같은 방식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이 아니라고 말해선 안 된다.

당신이 나의 방식을 정한다. 연인은 **사랑**하는 자이고, 동시에 연인의 **사랑**의 방식을 결정하는 자이다.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기이한 일, 즉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기적은 그들을 통해 일어났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사랑**을 하는데, 그렇게 자주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흔하게 널려 있는데 기적이란 말인가, 하고 질문할 수 있다. 자주 많이 일어나도 기적은 기적이다.

배고픔을 느낄 때 그렐린이 분비되듯 **사랑**을 느낄 때 도파민이 분비된다. 도파민이 **사랑**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도파민을 생성한다고 말하는 것이 더 이치에 맞다.

'**사랑하기**라는 기적을 만들어 내는 것은 **사랑**이다. 이 기적의 주체는 **사랑**이다. 연인들은 **사랑**이 기적을 행하는 장소이다. **사랑**이 **사랑**하게 한다. \

**사랑**이 아니라 생존이었다. **사랑**이라면, 그것은 생존을 위한 **사랑**일 것이다. 살려고 **사랑**하는 것이다. 살기 위해 **사랑**의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랑**도 있는 것이다. 아니, 단지 살고자 움직였을 뿐인 움직임을 외부의 시선이 **사랑**으로 읽은 것일 수도 있다.